중소기업 침몰직전 - 대수술 시급

◇경제정책을 통해본 중소기업의 위기와 타계책

경제가 계속 어렵게 되고 있다.

우리의 현경제상황을 이렇게 어렵게 만든 것이 무엇이며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시원스레 대답해 줄 만한 사람은 극히 드문것 같다. 아니, 현시점에서는 시각의 차이라는 용이한 핑계거리를 들어 기업은 정부와 노동자를, 노동자는 정부와 기업을, 정부는 기업과 노동자를 경제난후의 주범이라고 서로들 우기고 있다. 이런 외중에 모든 경제적 기반의 초석이라 할수있는 중소기업체의 경영난은 더욱 악화되어 3월현재 관매부진등으로 폐업하는 중소기업이 작년 동기에 비해 2.6배가 넘어 서고 있다.

중소기업체의 폐업사유로는 자금난이 57.1%, 판매부진 21.4%로 지적되어 중소기업체들이 여전히 자금압박과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알수 있고, 3월 현재까지 발생한 휴업체수도 지난해 195개 보다 87%업체가 증가한 203개업체로 휴업사유는 판매부진이 46.3%, 자금난이 25.1%, 시설비가 2.5%의 순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조업단축사유로는 판매부진이 58.5%로 절반이상을 차지 했으며 자금난이 12.8%, 원자재조달난이 6.2%로 조사되었다.

중소기업의 불황은 이미 부도의 폭발적 증대에 의해 입증되고 있으며, 작년의 부도건수는 6,159건으로 87년 이래 최고의 수준에 달하고 있고 올해 들어서도 3월말 현재 1,272건을 넘어서고 있어 자금의 추세로 나간다면 연말에는 지난해 수준을 훨씬 넘을 것으로 예측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의 취약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 현시점까지 이어지는 부도 및 휴·폐업, 도산의 증가는 어느해 보다 위협적 이라 할수 있다.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 비해서 자금, 인력 특혜차원에서 불리한 현경영면에서 더욱더 큰 타격을 받고있는 실정인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정부의 전통적인 지원책만으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격정스런 목소리는 그어느때 보다 커 있음을 알 수 있겠다.

소기업 경영상의 실태·문제점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처해 있는 경영상 어려움의 문제점으로

중소기업 경영상의 제반제 문제점은 공업입지의 부족을 들수 있다.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인력수급 및 판로등에서 유리한 수도권지역등 대도시주변의 공업입지를 구하고 있으나 수도권인구의 집중억제 및 환경규제의 강화등으로 수도권내에서의 공장용지 확보에 한계가 있어 입지난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네번째로는 중소기업구조의 미약을 들수 있는데, 우리나라중소기업의 양적인 측면에서의 성장은 경영력 및 기술력등의 부족으로 주로 저임금 및 저기술 노동구조를 유지하면서 발전하였으므로 독자적인 전문기술과 제품시장을 확보하고 대기업과 대등한 입장에서 경쟁거래가 가능한 중소기업의 비중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다섯째, 생산자동화 및 정보화의 미흡이다. 세계적으로 정보·통신사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모든산업분야에 걸쳐 국제분업과 합작투자등이 활발히 전개되고 정보교류가 촉진되는 국제화·정보화가 크게 진전되고 있는 시점에서 산업생산체계의 다품종소량생산체제로의 전환과 정보화의 진전에 부응하고 최근 국내생산인력부족에 대처하고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한 생산자동화 및 정보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국내중소기업의 자동화·정보화는 전반적인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여섯번째, 실질적인 지원제도로서 금융지원·조세지원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대기업에 대한 여신규제 및 금융기간의 중소기업에 대한 외부자금비율의 확대 실시등에 힘입어 최근 수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아직도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규모의 영세성, 담보력의 부족, 낮은 신용도등 중소기업이 갖는 구조적 특성때문에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91년 제2금융권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비중에서 투자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생명보험회사, 리스회사등이 각각 40.6%, 29.2%, 31.7%, 49.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90년수준에 머물고 있거나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고리 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국내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조세지원 또한 기술개발, 창업, 사업전환, 투자촉진등 제반이슈에 걸쳐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제도가 미련되어 있으나 조세정보부족과 지원대상요건 및 절차의 복잡성등으로 인해 현물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중소기업의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제고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기술개발상의 문제점이다. 선진국의 경제발전에 있어 50% 이상이 기술발전에 의해 이루어 진다고 분석될 때, 기술혁신에의한 새로운 용역의 창출과 인력 및 자원활용의 효율증대를 통한 생산성향상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며 국제경쟁력향상의 기반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생활의 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과 아울러 가격경쟁에서 품질경쟁으로의 양상이 바뀌고 소비패턴의 변화로 다품종소량생산체제를 통해 생산된 무수한 종류의 상품간의 경쟁이 격화되므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중요성은 그무엇보다도 크다고 할수 있다. 우리나라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촉진하기위해 기술개발자금지원과 조세지원정책이 있다. 자금지원정책에 있어 기술개발자금의 규모가 절대적으로 영세하고 자금융자적 화수가능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기업화단계에 대한 지원에 치중되고 있어 연구개발(R/D)단계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금융조건에 있어서도 일반대출과 그다지 큰차이가 없어 대출에 대한 유인효과가 적고 융자절차 및 심사기준이 까다롭다는 점도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는 상당히 불리한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수출진흥의 지름길은 중소기업의 육성 이다.

계속적인 수출부진와중에 올 1/4분기 국제수지적자가 18억8천만불려를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수출부진의 이유로는 원화가치의 상승, 임금의 급격한 상승, 국제원자재가격의 상승, 이른바 3고의 영향과 계속이어지는 노사분규로 인한 기업인들의 투자의욕상실과 근로자들의 태업등으로 인한 생산력저하를 들수 있다. 우리의 수출상품들은 많은 중소기업의 부품에 의해서 생산된 더구나 90년대의 세계시장기호가 개성화, 다양화되고 창조적 기술혁신과 정보사회가 진전될 것이므로 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이 바로 수출진흥의 지름길이 되는 것이다.

향후 중소기업 경영방향

우리나라경제가 빠른 시간안에 괄목할 만한 성장, 발전을 이룩했다는 사실에 반해 중소기업이 80년대 이후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성장을 주도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 예를 들어 80년대 한국은 제조업부문에서 110만명의 고용증가를 이루었는데 이중 81.9%가 중소기업이 이룬 것이며 부가가치면에서 중소기업의 기여도는 80년 35.2%에서 89년 45.0%로 높아졌다. 앞으로 한국경제 제2의 도약이 중소기업의 효율화, 계열화, 국제화의 성공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1988년 현재 우리나라 제조업 가운데에서 중소기업이 고용 57.8%, 부가가치 42.4%, 수출 37.8%라는 점유비를 차지하였고 95년까지 63.5%, 50.1%, 50.2%로 늘어날 전망으로 알려졌다. 산업구조고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져가는 현시점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추구해야 할 경영전략을 간단히 살펴본다. 첫째, 중소기업의 기술지립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기술력중심의 중소기업구조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 현재 중소기업이 처해있는 경영상 어려움의 극복과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집약화를 통한 산업구조고도화를 조속히 달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둘째, 정부의 적절한 금융지원을 전제로 중견내지 영세중소기업에서도 간이자동화에서부터 본격적자동화시설 투자가 지속되어야 한다.

셋째, 기술집약 및 고부가가치형 중소기업의 신규창업을 늘리고 조속한 업종전환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창업지원기관의 역할강화 등을 통해 창업자금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창업절차의 간소화 및 공장수지의 원활한 공급을 도모하고 경쟁력약화업종은 점단기술신업으로 과감하게 업종이전을 유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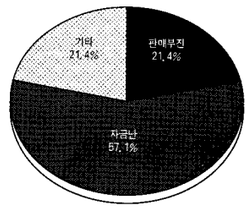
넷째, 전문분야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협력체제를 더욱 확고히 해야 한다. 모기업과 수급기업간의 상호신뢰구축을 통한 공정한 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전문화로 대기업과의 기술분업의 협력을 증대시키고 주요기능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소기업과 중기업과의 유기적인 연계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다섯째, 세계적으로 기술보호장벽이 높아감에 따라 외국기업과의 합작투자를 통하여 기술정보의 입수를 강화하는 한편, 습득한 기술을 사내전수를 통하여 기술전파 및 축적을 효율적으로 도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자금난의 빠른 해소를 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자금시장의 안정화노력이 있어야 한다. 금융긴축으로 일차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중소기업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대해야 하며, 금융기관의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점주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무역금융이나 제조업, 중소기업이 안정된 생산활동을 위한 자금흐름의 개선수단은 금융의 시장기능화와의 큰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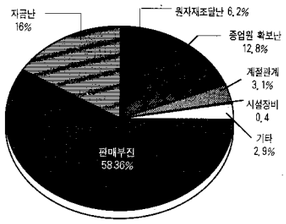
배 경 환

〈본고 대학원 석사2기·무역학〉

◆폐업사유



◆조업단축사유



정부의 전통적 지원책만으로 해결 불가피
전문인력 부족, 자금사정 악화 부도 잇달아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추이

	90. 1/4	90. 2/4	90. 3/4	90. 4/4	91. 1/4	91. 2/4	91. 3/4
원활	9.6	7.5	7.3	8.4	7.2	5.1	5.1
보통	51.7	46.9	47.2	48.2	44.1	38.2	40.6
곤란	38.7	45.6	45.4	43.4	48.7	56.7	54.3

자료: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 중소기업경영실태 및 동향, 각호
주:각 분기별 응답업체의 비율임

중소기업 부도율 추이

	1988	1989	1990	1991. 9
전 체	0.04	0.04	0.04	0.06
중소기업	0.35	0.22	0.20	0.36

자료: 한국은행, 중소기업은행
주: 1)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은행의 업체기준업체 기준임
2)금액기준임

집권 여당의 조삼모사(朝三暮四)

올 92년을 두고 흔히 말하기를 92. 93대 격돌기, 또는 권력 재편기라고 이야기해 왔다.

이는 올해에 국회의원 총선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대통령 선거등 굵직굵직한 선거들이 연달아 치뤄질 예정이기 때문이었다.

이에따라 지난 3월24일 역사적인 3.24총선이 치뤄졌으며 이결과로 정치에는 물신, 외교에는 굴신, 경제에는 쇠기망신, 치안에는 등신, 날치기에는 귀신 등의 6대6신이라는 신조어까지 낳게한 집권 민자당에대해 총선참패라는 단호한 심판을 가져오게 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진 여소야대의 국회가 아직 개원치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노태우 대통령이 지난 87년 6.29선언 당시 내세웠던 공약중의 하나인 지방자치제 실현중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관한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여당인 민자당에서는 선거예서 을지도 모르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우려해(?)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를 올 12월에 있을 대통령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주장이니, 야당은 이를 받아들일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에서 이를 거부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 이유는 여당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연기하려고 하는 이유는 나라의 경제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들의 안정적인 권력 재창출을 위해서이기 때문이란 이유에서이다.

그렇다. 집권 여당에서는 이번 총선의 군 부재자투표 부정에서도 나타났듯이 자신들 휘하의 행정력을 동원이 금권, 관권 선거를 저질러 왔으며, 만약 대통령 선거 이전의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로 인하여 이 자리가 상당부분 야당에게 잠식되게 되면 그들이 원하는 금권, 관권 선거를 마음대로 펼수 없으며 이는 자신들의 안전한 권력 재창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기간중 막대한 정치자금으로 돈 없이는 정치를 하지 못하게끔 만들고 선거로 인해 국가경제마저 휘청거리게 만들어간 장본인이 누구인가?

지방자치제를 총히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이 지방자치제는 현 집권당의 총재이며 대통령인 노태우의 공약이었다.

그러나 그는 지금에와서 자신의 권력 재창출이 어렵다는이유로 이를 유보하려 하고 있다.

여기서 세시봔구 강력하게 말할수 있다.

우리의 국민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이 내건 공약을 헌신짝 버리듯이 내팽개치거나, 마음대로 입장을 변경하는 이에게는 더이상 표를 던지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그 꽃을 소중히 간직하고 피우기 위하여 더욱 더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 이라고 말이다.

제3회
대학(원)생 논문 현상공모
착은 꿈도 소중히 하는 저희 국민은행은 고객에게 보다 나은 금융편의를 제공하고, 번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처하기 위하여 대학(원)생 여러분의 우수한 논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패기와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논제 : (다음 중 택일)
● 금융자율화의 은행경쟁력 강화방안
●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은행의 마케팅전략
● 산업구조 조정기에 있어 은행의 역할
(중소기업을 비롯 2단 분야의 육성방 및 지원조직)
● 가계저축 증대와 금융기관의 역할
응모요령
● 원모자격 : 전국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원고매수 :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
(10매 내외의 요약문 별부)
(1인 1편 접수, 시효후 30매 내외
-3매 내외의 요약문 별첨)
● 원모마감 : 1992. 9. 10.
● 당선자 발표 : 1992. 10. 30.
(개별 통보 및 경제신문에 게재)
● 2인 이상 공동응모 가능
● 제출처 : 우 100-703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국민은행 시장개발부 현상논문담당자 앞
상금 및 시상
● 대상 1건 : 300만원과 상패
● 금상 2건 : 각 100만원과 상패
● 은상 3건 : 각 50만원과 상패
● 동상 5건 : 각 30만원과 상패
● 응모자 전원에게 기념품 증정
● 시상일자와 장소 : 추후 개별 통보함.
특전
● 대상 및 금상 수상자가 당행 입행을 희망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채용시 우대함.
새은 꿈도 소중히 하는 국민은행

컴퓨터
통학권 발급, 휴일도 접수중.
개강 : 매월 첫째 월요일
23년의 전통
높은 취업률
풍부한 실습시설
국내 최대의 전산학원
프로그래밍 정규과정
■ 프로그래밍 정규과정 (7개월)
■ 프로그래밍 숙성과정 (4개월)
■ 정보처리 전문과정 (1년)
■ 마이컴 (386DX) 정규과정
■ 여성 OA 정규과정
■ AUTO CAD, 컴퓨터 그래픽 과정
■ C·언어 정규과정
■ 정보처리기사, 기능사 시험 대비반
■ 특설과정 : •UNIX •자료구조 등지
과목별 선택수강 가능
전자계산기 일반, MS-DOS & BASIC, COBOL-1, COBOL-2, FORTRAN, C-LANGUAGE, ASSEMBLY, WORD-PROCESSOR, LOTUS 1. 2. 3, DBASE Ⅲ+, CLIPPER, PASCAL, UNIX, 자료구조 등계, AUTO CAD 1. 2, GRAPHIC 1. 2,
서초 2.3호선 교대역 외환은행 건너편 ☎521-1761~5
영등포 당등포로터리 제일은행 옆 ☎631-1921~5
종로 단성사앞 비원빌 (중앙빌딩) ☎766-1811~5
본원 이대입구 전철역앞 (중앙빌딩) ☎313-1711~5
부산 : 부산역앞 (중앙전자빌딩) ☎466-1611~5
대전 : 은행동사거리 (중앙빌딩) ☎522-3801~5
컴퓨터 교육의 명문 중앙전산학원
중앙정보처리학원

프랑스語
7 - 8월 학기 수강등록
• 개강 : 92. 6. 29(月)
• 등록 : 92. 6. 15(月)부터 (방학특강반 개설)
alliance Française
MÉTHODES Adolescents-Adultes
Nouveau/Différent/Actuel
알리앙스프랑세즈
• nauer 1. 5. sans frou. 1. 1. 8
• archipel 1. 1. 8. bonne route 1
• avec plaisir. France art. VIDEO
• traduction, thème, 5.F.P. 시사세미나
• 각급 맞춤 속성반, 문법중심과정
• conversation libre, 시사세미나반, A.2.
seoul-centre ☎755-4972, 5702(중구)
nam-seoul ☎555-1125, 1126(강남)
PUSAN:622-3601 KWANGJU:526-0189
TAEGU:255-4630 DAEJON:256-5181
alliance Française 韓佛文化會館

컴퓨터
본원은 국내 최초의 정보처리 전문 교육기관입
개원 24주년 개강 : 매월초
정규 및 특별과정
■프로그래밍정규과정 ■기사자격취득과정
■OA초급(BASIC, WP) ■대학생방학특강
■OA고급(AT, HDD) ■정보처리기사종합특강
■C언어-1,2(PC, 대형) ■여성OA취업특강
정보처리기사(1,2급)종합
■일시 : 7.1~7.31 18:00~21:30(1급) 18:00~18:30(2급)도 별도
■특징 : 출제경향 기대학교 전산학과 교수진편성, 모의고사
C언어과정(초·고급)
■시간 : 07:00~08:30, 17:00~18:00, 18:30~21:30
■특징 : 실무 및 기사시험대비종강과정, PC 및 대형실습
OA고급과정
■40MB HDD환경 dBASE, LOTUS, 워드자동출력
■최신 3개 국내 최초로 개발된 본원OA과정의 전통, 전문화
최신 대형컴퓨터설치 완료
■MV-15000S-8 및 IBM OS F/4000 대형컴퓨터
■대형컴퓨터터미널 및 PC 300여대 전용실습
백문불여일견, 내방견학상담환영!
단체교육 및 취업의뢰기관장께 감사드립니다. 환강 환남북
■본원은 교육목적상 본원을 안두에 대한컴퓨터학원의 명칭변경, 학력개정전문화로 서실확장 및 혁신
■위 치 : 파고다공원건너편 종로2가 네거리(통학권발급)
■상담실 : 274-6911~5(낭·낭랑원비)
대한정보처리학원

중등전공 특강
국어, 영어, 수학
국사, 사회, 윤리
지리, 물리, 화학
생물, 지학, 체육
가정, 간호학...등
중등 전과목
*선착순 접수마감
교육학 특강
개강 : 7월 1일(현재상담접수중)
오전, 오후, 야간, 주말반
*방학특강반 선착순 접수마감(정원제)
* 현직 교장, 교감, 강학사 선생님께서 추천하는 교육학 정통파 명강의! 적중률 높은 명강의!
* 국내 최정상의 교육학 강좌
이미 합격하신 선생님께서 강의실력을 인정하셨습니다.
- 수험중학교육학 저자
이 대 기 교수 책임강의!
이대기 교수팀의 강의는 항상 완벽한 "PRO의 정신"만을 고집합니다.
- 전국 최초 강의(1972년~1992년)
※전국 최다 합격생 배출(15,000명)
91년 1월 시행 (교직 40문 중 38문 적중)
91년 11월 시행 (교직 40문 중 39문 적중)
각 시도수관(논술, 면접 100% 적중)
서울 노량진 전철역앞
서울고시학원
TEL. 817-5418 · 5478